

충효로 근본을 삼고 경학으로
업을 삼아 유틴 관작과 영달을
구하지 말라.

閉窩公 遺戒

坡州廉氏宗報

發行人 廉珪澤
編輯人 廉宗祖
編輯委員 東右, 秀東, 敏燮
南燮, 基培
發行處 (坡州廉氏大宗會)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30의 2 2층
전화: 714-6223 야간: 924-1020
印刷所 현대종합문화사 代表 鄭仁基



구한말 1세기 前까지만 해
도 個人的 출세기준은 官職의
品階에 의해 평가되는 바가
컸다.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
려면 科試를 통한 及第의 길
이 정상이었던 만큼 과거는 입
신의 출발이자 기본과제였던
것이다. 이 과거에 급제하려
면 당사자의 能力도 있어야
하지만 應試의 자격이라 할
수 있는 원서에 身分을 표시
함에 있어 父, 祖의 身分과
家系가 明示되어야만 했다.
때문에 身分이 낮은 사람은
族譜를 사서도 해야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制度는 한 門
中(同姓同本의 家系)이나 家

廉門일가 업고갈 일꾼들께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
이라 생각된다. 사람인 이상
비록 他人이라 해도 주신 恩
惠에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는
상념은 人之常道인데 父母의
은혜야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평생 두고 잊을
수 있겠는가.

近間 社會生活의 변천양상
이 物質萬能과 個人利己의 인
방향에 치우쳐 國家나 家族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
감이 희석되고 심지어 한 家
族에 있어서도 核家族화니 하
며 細分化되고 아들, 딸 가리
지 않고 하나만 놓아 기르자
는 식의 성향으로 한 家門을
保住한다는 理念은 變化되고
있는 추세에서 家門이나 家系
의 存立문제도 생각들을 再定
立하지 않을 수 있게 된 現實
이다.

아니고 淳風美俗의 傳統을 재
정립하는 理念의 復歸가 절실
하다고 믿어진다.

情의인 눈물에 호소하지 않
더라도 한 個人的 입장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봉사와 희생
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고 또
그의 立身과 값진 結實에 진
심으로 격려하고 반겨줄 수
있는 상대는 父母妻子의 관계
보다 더한 관계는 없을 것 같다.

病이 들었을 때 신체의 일
부를 서슴치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상대, 환희의 순간 그
즐거움을 먼저 전하고 싶은
상대는 家族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情의인 유대관계는
社會制度가 變한다해도 變化
시켜서도 안되고 變할 수도
없는 敎義의인 理念 아니겠는

나누자는 모임이다.

現代는 組織社會라 한다.
요즘 팽배하는 集團利己心의
惡循環은 社會를 혼란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方向
이고 향토사랑이니 國家에 대
한 충성이니 하는 肯定의인
展開는 지켜지고 촉진되어야
할 理念이다. 이러한 모임의
하나가 宗親, 일가의 모임인
데 같은 핏줄임을 因緣으로
하여 先祖분들에게서 이어지
는 遺志의 계승과 그 핏줄의

유적을 보전관리하며 共同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려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우선은
친목으로 모여서 共同課題를
定立해서 추진하는 것을 總領
으로 한다.

우리 坡州廉氏의 大宗會는
發足한 이래 여러 課題을 이
룩했고 또 새로운 과제를 設

맞지 않는다면 이는 완전히
思考의 모순이다. 정녕 짚은
이로서 꼭 무엇을 이루하겠다
는 使命感이 있으면 우선 모
임에 참석하고 일가분들을 설
득하며 결정된 사업을 추진함
에 있어서는 솔선 혼신해야
할 것이다.

時流가 하 수상하여 직접적
으로 社會生活에 허덕이고 있
음도 짐작은 된다. 하지만
特定사업은 돈의 여유가 있어
야 이루어지고, 나이가 들어
야 적극적일 수 있고 또 學歷
이 높아야 추진될 수 있다는
말들은 短見이다.

지금까지 大宗會 일은勿論
여러 사업들이 어려운 여건에
서도 찬란히 結實된 성과를
우리는 많이 봐 왔다. 大宗
會의 행사나 每年 各地域에서
奉行하는 享祀에 참여하는 사
람이 늘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고 老後期에 중책을 맡은
입장에서 일가분 짚은 이들의

族의 역할이 대단하여 평소에 일가들의 生活과 風俗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고 가혹 할 정도의 刑罰權까지도 門中에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한 門中의 역할이 그러하였기에 한 家庭에 있어서도 戸主權이 당당하여 父, 母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명제였으니 父母를 존경하고 돌아가신 祖先분들의 분묘의 관리 유적의 보전 等은 일상생활에 있어 主要과제였던 것이다. 아무리 時代가 변하고 宗教가 다양해도 父母에 대한 존경과 돌아가신 先祖님에 대한 追念과 명복을 기원하는 관습은

더하여 女權도 신장되어 여성도 戶主로 상속되고 동성, 동본간에도 혼인이 용납되는 경향이고 보면 制度上으로도 家族의 개념은 變質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近間 보도된 바로는 버젓이 아들, 딸이 健全한데 70이 넘는 노약자가 子女들과 떨어져 사는 例가 一般化되고 있다 하니 家族間에 양육이니 부양이니 하는 사명감으로 화합된 유대가 허물어져 버린다면 人生살이는 쟈막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時點에서 時流를 역행하는 復古的 次元에서가

하였다.

즐거운 명절에 家族이 한데 모여 그 즐거움을 같이하고 슬플 때 모여 위로해 주며 돌아가신 家族들의 은덕을 기리고 유지를 계승하려는 성향은 어느 社會에서도 권장되고 계승되어야 할 美德이다. 이 마음들이 모여지고 擴大되어他人을 위하고 社會에 공헌하며 人類愛, 自然사랑의 基源이 되는 것이다.

家族을 기점으로 한 모임은 社會에 각기 인연에 따라 共同體가 생겨난다. 肇始회, 동창회, 친목회 각종 후원회 등은 모두 共同이익과 사랑을

장으로 이사 權翊을 면하고 東基(광주 총무), 圭坤(부산 부회장), 泰求(음성총무)를 새로 理事로 改·補選했다.

마. 大宗會 경상비 충당을 위한 성금

근간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基金의 利子 수익금만으로는 경상비를 충당할 수 없어 대의원 合意로 會長 30만원 부회장 20만원, 고문, 자문, 감사, 이사 각 10만원씩의 성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바. 江華유적관리사항 보고
江華祀壇의 회계결산사항

定해서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일가가 많고, 또 참여했던 일가분들 中에는 大宗會가 이룩하고 指向하는 사업들의 先祖의 유적관리 보전에만 치중하는 결과 짚은 世代의 性向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

이는 너무 實情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大宗會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과제의 설정부터 즉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과 定立은 일가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合意로 이루어진다. 合意로 이루어진 사업이 자신의 의행에

및 2000년도의 예산사항을 보고하고 2000년 中으로 神道碑지역의 보수예정 사항을 보고하였다.

(1) 2000년 4월 17일~4월 28일에 걸쳐 約 6일간 神道碑 지역에 건물 1동 철거와 1동 보수, 그리고 신도비 주변의 정지작업(돌로 지면을 포장) (총경비 6,475,100원)을 하였다… 경비 珪澤會長 전담…

(2) 제초제 살포

2000년 5월 15일, 6월 7일 2회에 걸쳐 祀壇지역에 전

명쾌한 사리와 용기 있는 결단으로 무엇인가를 이룩하여 後孫들에게 자랑되게 傳하여 보람과 궁지를 갖도록 다시 촉구하는 心思 간절하다.

일가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祈願하며, 菜根譚에서 한 구절을 오늘의 銘으로 삼는다.

建功立業者 多虛圓之士
債事失機者 必執拗之人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는 사람은 허심 원만한 사람이 많고, 일에 패하고 기회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집요한 사람인 것이다.)

大宗會長 珪澤

大宗會 소식

1. 2000년 定期總會 개최

2000년 4월 15일 11:00~14:00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大宗會 사무실에서 代議員 40명이 참석하여 2000년의 定期총회를 개최하여

가. 會長(珪澤)의 人事말씀이 있었고, 이어 기간 中의 會務보고(常任理事 宗桓)와 2000년 3월 16일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감사 相守) 그리고 基金관리사항 등을 보고

하였다.

나. 1999년도의 大宗會 會計결산안을 상정하여 檢토후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하였다. (결산액 10,303,670원)

다.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檢토후 총액 14,026,509 원의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라. 大宗會 任員 補·改選案

1999년 4월 10일 선출된 任員 중 부회장 洪燮(광주), 德洙(부산)을 고문으로, 부회장 洪太를 자문으로 理事 鍾洙(부산회장), 燉鎬(강릉회장), 東洛(대전회장)을 부회

반적인 제초제를 살포하였다. (수원종친회)

사. 釜山종친회가 永川도선 산 관리사항 등의 보고를 했다.

아. 광주 吉燮氏에 의해 提案된 바 보성군 문덕면에 있는 清溪影堂의 보수공사를 위해 현성된 500만원을 大宗會의 이름으로 현성 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앞으로도 일가분들이 목적부 성금에 대하여서는 총회결의에 의해 승인되도록 하였다)

南 谷 遺 稿

-廉錫珍의 詩文-

廉錫珍은 忠敬公后 18세손
인 父 在豹(號 惺窩)와 母 靈
光金氏 사이에서 高宗16년
(1879년)에 次男으로 長興
塔洞里에서 出生하였다.

淵齋 宋秉璿 勉庵 崔益鉉,
松沙 奇宇萬 日新 鄭義林, 小
石先生 門下에서 受學하였으
며 長興 魏賢植의 女와 결혼
하면서 魏氏 門中の 人士들과
交遊하여 여러 사람들과의 書
答文이나 詩文이 傳해지고 있
으며 그의 遺稿中에서 丁卯至
月에 豆萬江 舟中 口號一絕과
癸巳(1953년) 5月의 贈別 龍
井興雲齋 諸君 등 詩文에 따
르면 일찍기 北滿州 間島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門生 魏福良이 쓴 奉呈 南
谷 廉先生 入北行幘下에 의하
면 日帝下 國內 어려웠던 역
경을 피하고 天痛恨別離鄉去
國의 素情으로 間島에 들어가
泉甘 土肥, 民淳, 俗厚의 환
경은 我國諸士大夫들의 樂土
라 하며 함께 있던 慷慨之人
士 魏弘毅, 金農谷, 趙後圃

등 諸公과 수년간 從遊하면서
講討하였다고 했고 還鄉後에
는 大盤村으로 移居하여 任氏
門中 사람들과 친히 지내다
丙申(1956년) 12月에 78세
로 세상을 떠났다.

南谷의 長子 學洙에 의해
1964년에 南谷 遺稿(4券 2
冊)가 刊行되었다. 遺稿에는
많은 人士들과 나눈 詩文과
各地를 돌며 느낀 詩文들이
있으나 이 中 坡州廉門과 관
련된 題目을 추려 보면 다음
과 같다.

次後峯原韻(廉日錫字性年
居보성, 봉덕)

奉呈孝子至誠族人 台變(七
言絕律)

新月里用 牧隱次菊坡詩券韻與
族人昌變叙花樹之韻(하동군
古田面)

讀廉正錫妻孫氏傳有感(보성,
문덕)

次晚守族從宅洙回甲韻
挽族從 駟洙氏
挽族叙 果庵丈(在慎)
宗孫 東江, 秉變, 哀詞

與宗人 進士 奎鎮(통영군 明
井里)

坡州廉氏派譜序(代北間島延吉
縣 廉琪連作 丁卯十月 余在
間島時)

答族姪子受(族從 在業)

次室城族人 景春回甲韻

拈牧隱 東亭招飲韻與 昌變,
其和

遺稿中에서 詩 몇 首를 음미
해 보아 南谷先祖의 心境의
一面을 짐작코자 한다.

- 入松廣寺 -

昔聞松廣寺 今日始登臨
八萬藏經閣 儼然佛祖心
(옛부터의 名刹 松廣寺에
오늘에야 처음 찾게 되었네
그 많은 經典이 있는 殿閣들
엄연한 부처의 가르침 느끼
네)

- 甘露庵 夜半眠一巡 -

甘露庵中宿 無眠我獨遊
鄉山何處是 明月惹人愁
(감노암에 머물었네
잠 이루지 못하고 혼자 거닐
며 인생의 향산은 어드메일꼬)

저 달이 더욱 사람의 수심을
깊게 하네)

- 自間島渡豆滿江 舟中口號 -
朝日長江裏 孤帆帶北風

渡頭暫回首 永雪兩崖中
(아침 햇살 장강에 비칠 때

북풍은 외로운 뱃머리에 스치
고 잠시 주변을 고개 돌려 바
라보니 양쪽 언덕에 눈서리
나부끼네)

- 南谷 原韻 -

道南谷裏一天明
有此居人仍此名
遺業詩書真活計
新庄花木樂生平
門臨滄海衿懷闊
枕傍潺溪夢寐清
肯向暫紛 要喫着
百年只得保幽情

(남쪽 끝 언저리에 하늘이 열
려 여기 이 한 사람 南谷이라
이름하고 유업의 詩書공부 세
상사는 참 보람일세. 농막에
새로 花木 가꾸며 樂生하여
창가의 푸른바다 보며 삼가
근고하고 침상머리 흐르는 계
곡소리 꿈결 맑게 하니 어지
러운 塵世 오히려 수긍하며
지내고 흐르는 세월속에 유정
을 지킨다오)

- 追挽族叔 果庵(在慎) -

拜別幾多時 居然歲色移
吾門頽蕃障 士類失賢師
於何因考德 從此不堪悲

篋裏遺編在 子雲獨自知
(절하고 해어진지 얼마나 되
었는고. 벌써 세월이 덧없이
흘러 우리 문중 한 올타리가
기울어지고 선비들은 어진 스
승을 잃었네. 어인 인연이기
에 고덕을 잃어 그 슬픔 견디
기 어렵군요. 다만 대광주리
속에 유고를 남겼으니 남은
후손들 그 유지를 스스로 알
리라)

丁卯 10月(1927) 延吉縣
에서廉琪連이 쓴 坡州廉氏派
譜의 序文이 南谷遺稿에 있는
바 이때 修譜한 譜書는 昭和
2年(1927년) 陰12月 1日에
發行된(7券) 것으로 發行人은
廉日先, 廉弼星이며 間島 吉
林省 延吉縣 頭道市 大同印刷
所에서 인쇄를 하고 遺稿에서
의 琪連은 廉基璉으로 序文을
썼으며 彫刻兼 植字를 담당한
清江公 後系를 中心으로 한
譜冊이다. (南谷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타 소식

1. - 盤溪影堂 보수 및 懸板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에 있는 盤溪影堂(忠敬公 獨享)과 講堂인 景賢堂의 보수 공사를 하고 影堂의 懸板을 새겨 걸었다.

廉鳳哲 일가가 글을 쓰고

廉在郁이 전각하였다.(2000년

3월 20일)

2. 清溪影堂 享祀 및 현판

일가분들의 精誠으로 오랜 工事와 수고로 全南의 보성, 문덕면에 있는 清溪影堂이 양동리 永思齋 근처로 옮겨와 建立되어 2000년 4월 19일

2000년도 회계 예산

수입지부

항 목	'99 예 산	2000년 예 산
이 월 금	3,230,179	3,526,509
기 금 이 자 중	3,200,000	4,000,000
현 성 금	5,000,000	5,000,000
종 보 간 행 성 금	1,000,000	1,000,000
종 보 광 고 수 익	500,000	500,000
계	12,930,179	14,026,509

지출지부

항 목	99년 예 산	2000년 예산안
전 화 요 금	500,000	500,000
사 무 비	600,000	600,000
출 장 비	600,000	600,000
회 의 비	1,700,000	1,700,000
향 촉 대	1,500,000	1,500,000
종 보 간 행	2,000,000	2,000,000
경 조 비	1,000,000	1,000,000
거 마 비	3,600,000	3,600,000
사 무 실 관 리	500,000	500,000
세 금	400,000	400,000
잡 비	300,000	300,000
예 비	230,179	1,326,509
계	12,930,179	14,026,509

에 새로 扁額을 懸板하는 등行事와 더불어 門中의 여러 어른과 일가분들이 참예하여 이 해의 享祀를 올렸다.

3. - 忠敬書院 廟庭碑 -

2000년 4월 9일 全南, 나주, 삼영동에 있는 忠敬書院의 享祀日에 廟庭碑의 除幕式을 거행하였다.

碑銘의 大要是 先祖五先生(忠敬公, 菊坡公, 東亭公, 清江公, 松隱公 이상 照東祠에 奉安)과 東德祠에 神主를 모신 4世 開窩公(怡), 5世 直長公(順良), 5世 薇谷公, 9世 錦齋公(室), 10世 錦圃公(喜)과 西德祠에 오신 3世 耕隱公(致庸), 3世 大護軍公(致誠) 3世 左司公(致誠) 10世 梁山公(世慶) 12世 退隱堂(傑)

위 여러분들의 功德을 讀揚하고 빛나는 勳業이 오래도록 전하리라는 요지로 成均館 자문위원인 光山 李炳根先生이撰述하고 長興 高光烈先生이 글을 쓰셨다.

4. -顧問 庚桓氏卒(號 蘇山)-

20世 庚桓 고문은 1917년 丁巳 4월 19일에 父 致雲과 母 坡平尹氏 사이의 次男으로 出生하여 弘益大 法科를 卒業하고 1951년에 檢事로 任命되어 地檢과 高檢의 次長檢事

와 2個지역의 檢事長을 歷任하고 1977년 退任 이후는 公證人으로 있었다.

공직중에는 功勞로 紅條 紅條 및 黃條勤正 勳章을 받았으며 大宗會에는 初期부터 적극 參여하여 副會長과 顧問으로 發展에 精誠을 다하였으며 2000년 5月 24日 아침에 享年 84세로 別世하였다.

술하에는 梅軒친목회의 총무직에 있는 長男 楊植과 泰植, 恩植, 潤植, 健植 등 5男과 明旭, 明子의 2女를 두었다.

5. - 23世 鴻武氏 卒 -

(號 古比)

鴻武氏는 1920년 庚申 6月 23日에 父 成均進士 奎鎮과 母 金海 金氏와의 사이에서 2

男2女 中 次男으로 出生하여 경남 통영에서 水產高等學校를 卒業하고 勉學에 힘써 韓醫師 國家考試에 合格하여 韓醫院 院長으로 濟世에 從力하였으며 평소 宗親會 行事を 先導하고 先祖분의 遺蹟을 保存 관리하는 일에 精誠을 하시고 2000년 9月 16日 享年 80세로 別世하였다.

술하에 大宗會 理事인 長男 賢植과 寧植, 曾植, 卿植, 文植의 5男과 1女가 있다.

- 大宗會 副會長 弘周(22世) 別世 -

그동안 묵묵히 大宗會 발전을 위해 힘써 온 弘周氏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2000년 10월 9일 밤에 自宅에서 享年 66세로 別世하였다. 氏는 부친 道有와 모친 金海 金氏와의 사이에서 4男5女 中 長男으로 1934년 甲戌 11월 24일에 出生하여 서울大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기계공학 學會長을 역임하고 五洲產業을 경영하면서 사업이 활발하였다. 동생 榮周, 三周, 泰周는 모두 工學을 전공했고 부인 清道 金順烈氏와의 사이에 아들 英虎, 起虎와 딸 영나, 영아를 두었다.

廉韓醫院

院長廉賢植

(釜山宗親會 總務)

(大宗會 理事)

부산시 종구 동광동 4가 21-1
전화 (051) 469-5543, 463-9266

존경을 받는 사람

어릴적에 우리들은 가장 존경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순신, 에디슨, 카네기이며 역사상의 人物을 거명 했었다. 요즘 青少年들은 누구를 尊敬할까.

10여년전 영국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존하는 국내인사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 20명을 뽑았는데 그 중 케임브리지에서 군수청소를 하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3위에 올랐다고 했다.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군수청소가 끝나면 시유지 공간에 칸나를 심고 가꾸며 품질도 개량하며 매년 시에서는 그 축제가 열렸고 이 행사가 확대되어 유럽에서 유수의 꽃축제로까지 하고도 이름을 내 놓지 않고 소박하게 지붕밑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역시 선진 국다운 일이고 그런 사람이

다.

얼마전 친구집에 갔다가 그 친구의 성장한 아들들과 대화 하던 중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화제에 올랐을 때 세 아들 모두는 입을 모아 진지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지금의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 의외이고 감동적이 아닐 수 없다. 그 친구는 학자도 저명 정치인도 더욱이 부호도 아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성장한 아이들에게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의문을 품고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그 친구라면 능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다. 70이 가까운 그 친구는 근면하면서도 탐하지 않고 부부가 건강하고 화락하고 꾸준히 책을 읽으며 행동과 생각이 바르고 혼자 있어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부럽다. 자식들에게 존경까지야 못 받아도 저렇게 살고 싶다.

또 한 친구는 오랜 군 생활 후 나이가 70의 중반임에도 상가에 경비근무를 한다. 연금만으로도 용돈은 되고 고향에도 터전이 있고 평소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로 자녀들 교육도 모범되게 시켰고 성장하여 기반이 확고한데 경비근무라니 이제 나이도 늙고 했으니 그만 쉬라고 했더니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쑤시고 너무 쉬면 잡념만 생겨나니 하면서 쉬는 날이면 산을 찾는게 유일한 낙이라고 한다. 비록 책을 읽지 않고 음악회를 즐겨찾는 풍류는 없어도 지나간 유행가 소리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정서도 갖고 있다.

어느 유명 人士보다 나는 이 친구들을 만나 차 한 잔을 해도 마음이 편하다. 자리에 술이 없고 화투치기를 할 줄 몰라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 사이다.

近間 정치가 혼란하여 權力

慾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이 그들의 할 일을 다 못하는 것 을 보고 그들이 밀기까지 하더니 계속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가 집에 있는지라 매월 병원을 찾는데 근간 집 단이기주의에 근원을 둔 파업이나 태업을 하는 통에 치료가 불편해지니 의사들도 미워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끔은 보도를 통해 일생을 고생하며 근근히 모은 재물을 사회에 헌납하고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고 외로이 소박하게 사는 늙은 분들의 미담이 있어 갈증난 가슴에 감로수를 얻은 양 숨이 트인다.

우리 門中에서 大宗會 일을 보고 있는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일에 짜증이 날 때는 당장 그만두고 싶다가도 일가 몇 분은 집안을 잘 다스리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할 일을 다 함에도 모나지 않고 성실한 충고와 따스한 격

려를 빼놓지 않는다. 가끔은 성금을 하시면서도 그리 많지도 않은 이 분의 돈은 다른 분들의 액수에 몇 꼽절에 벼금갈만한 고마움에 고개가 숙여진다. 어쩌다 이 분들과 상면하거나 가끔은 전화라도 받으면 힘이 나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이 분들의 학식이 높아서도, 나이가 들어서 만도 아니며, 성금의 액수도 물론 아니다. 그 분들의 정성에 흠이 될까봐 거명은 못하지만 이 분들은 분명히 가정은 정돈되어 있고 화목하며 이웃은 勿論 가정에서도 尊敬 받는 분에 틀림없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길거리에서 아무 말 없이 누가 보건 한 장의 휴지를 주어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과 차 한 잔을 하고 싶다.

(碧江)

慵齋叢話

- 成倪의 수필에서 보는 역사 -

오래전부터 보고 싶은 책이었다. 또 갖고 싶은 책이었다. 古書店에도 말해 두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던 차 秋夕을 앞둔 換節期에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해 감기몸살로 누워 있는데 전화로 그 책을 구했으니 나오란다. 만사가 귀찮아 움직이기 싫었는데 힘을 내어 이불을 박차고 집을 나섰다.

늘 만나던 그 찻집에 갔더니 항시 생기 넘치고 웃음 띤 모습의 門中 도유사이신 敏燮 님이 기다린다.

몸살로 누워있었다고 했더니 주인마담에게 특별히 주문하여 쌍화차 한 사발을 주며 눈감고 마시란다.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되어 눈감고 다 마시고 나니 정신이 좀 든다.

준비한 책을 건네준다.

고이 가슴에 안고 와 누워서 2일만에 原文이 있는 책 371페이지를 다 읽었다.

이 책의 저자 成倪(성현)은 세종21년(서기 1439년)에 태어났다. 懶齋(용재) 浮休子(부휴자) 虛白堂(허백당) 등은 그의 號이다. 24세때에 文科에 及第하여 藝文館, 弘文館 근무를 거쳐 經筵官으로 있다가 漢城判尹과 大司諫大

司成등을 역임하고 한평생을 官職에 있다가 66세로(연산군 10년)卒하였다. 著書로 詩集 15권 文集 15권 樂學軌範 6권 등 여러 저서가 있는 바 용재총화는 그의 독특한 平易流麗한 文章으로 經學과 詩文을 결들여 음악과 名人們의 이야기 등 正史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와 風俗, 습관 등을 수필 형식으로 저술한 10권으로 된 책이다.

내용이 재미도 있고 正史 이면의 사실도 言及하여 당시의 사회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이 内容中에서 特히 坡州廉氏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原文과 함께 추려 보았다.

첫 내용은 고려말 恭愍王의 그림이 뛰어났고 특히 초상화에는 유명하였다는 것을 알리며 공민왕이 그려준 충경공 유상이 역사성뿐만 아니라 미술품으로도 보물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 우리 門中으로서는 잊지 못할 우왕14년 戊辰正月의 참사를 최영장군의 후회를 통해 다시 새겨보고자 했고 끝으로 東亭公 清江公 두 분도 正史에 열거된 文士로 격조 높은 文集이 존재했다는 기록을 보며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성 깊어 찾기를 기원해 보았다.

내용을 보면

1卷中에서

描寫爲像 非得天機者 不能得 能得一物 而能精衆品尤爲難 我國名畫史罕少 自近代觀之 恭愍王畫格甚高 今圖書署所藏 魯國大長公主眞與德寺所在 釋迦出山像 皆王平跡往往甲第有畫山水 甚奇絕也 (어떠한 물체의 모양을 묘사한다는 것은 타고난 재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할 수 없다. 한 가지의 물상을 잘 그리는 것에 능할지라도 여러 가지에 다 잘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우리 나라에서 이를 난 화가는 역사상 드물다. 근대에 찾아낸 恭愍王의 그림의 격조는 매우 높다. 지금 圖畫署에 보관하는 있는 魯國大長公主의 초상화와 興德寺에 있는 釋迦出山像是 다 공민왕의 솜씨이다. 왕왕 大家에는 공민왕이 그린 山水畫가 있는데 매우 기이하고 절묘하다.)

위 글에서 짐작하는바 우리 門中에 傳해지는 忠敬公 中始祖님의 초상화는 이 공민왕이 손수 그려준 초상화로 역사상에서도 보기 힘든 격조가 높은 공민왕의 솜씨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3卷中

崔鐵城瑩少時……中略……
公每憤林廉所爲 盡誅宗族 及

其臨刑之日 乃曰 平生未嘗造惡業但誅 林廉過當耳 我若有貪慾之心 則墓上 生草 不然則草不生矣 墓在高陽 至今禿糖一把茅 俗謂之紅墳也。

(崔瑩은 어릴적…… 중략…… 공이 매양, 염견미, 염홍방의 소위를 분하게 여겨 그의 宗族을 모조리 베어 죽였다. 그가 마지막 刑場에 서던 날 드디어 말하기를 내 평생에 惡業을 짓지 않았으나 다만 임견미, 염홍방의 일족을 베는 일은 지나쳤다. 내가 만약 탐욕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 무덤위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무덤이 高陽에 있는데 지금까지 별겋게 벗겨져 한 줌의 땅도 없다. 세상에서 “붉은 무덤”이라고 한다.)

戊辰正月(우왕 14년 서기 1388년)에 당시 權座의 최상에 있던 최영은 신군부 이성계 일파의 꼬임에 넘어가 사소한 이유로廉門 일족을 몰락케 한다. 염씨라면 강보에 쌓인 어린이까지 심지어는 처족, 사위까지 무려 1천여명을 학살했는데 이때 최영은 門下侍中, 이성계는 守門下侍中, 이색은 判三司事였다.

이해 3월에 최영은 딸을 우왕에게 시집보내 寧妃로 삼고 영화를 더하였으나 이 해 6월에는 모시던 王도 자신도 유배되어 끝내는 일어서지 못하

고 죽고 만다. 무슨 영화의 미련이 남아 죽으면서도 탐욕이 없었다고 헛소리하며 묘에 풀이 안나올거라 하고 “붉은 무덤” 운운했는데 고양군 동쪽 10리 떨어진 大慈山록에 있는 무덤에 지금 가 본 사람은 그 무덤에 풀이 있는 것을 보고 최영장군이 미련타 할 것인가, 세월이 무심타 할 것인가.

8卷中에서

我國文章家 紗少 而著書者尤紗 桂苑筆耕幾卷 新羅崔致遠所著……東文選幾十卷 徐達城受命所撰 皆集前賢詩文也…… 牧隱詩文集幾十卷 韓山伯李穡所著 爲東方文府……圃隱集一帙 文忠公 鄭夢周所著……東亭集一帙 廉興邦所著 莺庭集一帙 廉庭秀所著……

(우리 나라에는 文章家가 적다. 그리고 저서가 있는 이는 더욱 적다. “계원필경” 몇 권은 신라의 최치원의 저서이고 …… 중략.

동문선 10권은 서달성이 임금의 명을 받고 찬정한 것이다…… 중략.

목은시문집 몇 10권은 한산백 이색의 저술로서 동방의 문부라고 할 만하며 …… 포은집 한질은 文忠公 정몽주가 저술한 것이며 …… 東亭集 한질은 廉興邦의 저술이고 흰정집 한 질은 廉庭秀의 저술이

(다음면에 계속)

栗山漫錄

- 廉錫九의 門中을 위해 爲力한 자취 -

舊한말 세기의 時流는 급격히 변하여 특권계급에서는 당쟁만 일삼아 부패하고 官吏들은 貪虐을 일삼아 백성은 도탄에 빠져 社會가 극히 혼란 하던차 哲宗이 下世하고 어린 高宗이 즉위하던 해인 哲宗 14年(1863년) 癸亥2月에 慶南 德裕山 남쪽 咸陽 땅에서 父 聖基(司憲府監察號 誠庵) 와 母 延安 李氏 사이에서 4男3女의 長男으로 廉錫九(22世孫 字乃範 號栗山)는 태어났다. 短身이나 용모 秀麗하고 심성이 淳朴하며 好學, 聰明하여 젊어서 靑紫之門에 뜻을 두고 10여년간 京師에서 烦山苦海의 간난을 겪으며 學業에 열중하였으나 오랑캐들의 침입으로 나라안에 질서가 어지럽고 國運마저 기울어가 세상에 더 이상 나갈 뜻이 없어져 귀향하여 雲林泉石之間에 소요하며 祖上의 뜻을 받들고 後學들을 가르키며 田園之樂으로 自安自適하였다. 집 근처 산에 밤나무를 심고 스스로 栗山이라 號했다. 自

咸陽郡 安義面 林內에 盤溪影堂을 設立하여 奉安하고 또 後學들의 訓導을 위해 影堂 옆에 講堂을 세워 景賢堂이라 扁額하여 丙申(1896년) 10月 下旬에 月城 崔益鉉이 撰한 堂銘記文을 받았고 또 丁酉(1897년)年에는 德殷 宋秉璿이 지은 景賢堂記를 받아 扁額하여 비치하고 新制學校 시설에서 童蒙敎官으로 재임하여 젊은 후학들을 가르쳤다.

또 1899년(己亥 6月 上潮)에는 경기 長湍, 亢洞에 있는 中始祖 忠敬公의 神道碑가 세운지가 오래되어 돌이 이그리지고 글자가 풍개져 읽어 볼 수가 없게 됨을 보고 嗣孫들의 뜻을 모아 碑를 새로 세워 단장하였으나 牧隱이 奉敎撰한 기준 碑文을 後孫 進士 廉右鉉이 새로 쓰고 大司憲 宋秉璿이 追記文을 짓고 宋道淳이 전각하여 새로 세우는데 在業, 章洙 일가들과役事를 주도하였다.

또 1927년에는 永川 採藥

고 參議公一位는 直系孫에 限하여 捐助해야 한다고 했고 또 廉昌錫은 宰相公一位만 全鮮廉氏가 同一하게捐助하고 그 외 2位는 直系孫이捐助케 하자고 했으며 廉錫俊, 廉在浩는 三位墓所가 同在一麓인데 어찌 直傍系로 區分 論할 것인가. 倫理 道德上 심히不安하고 각己 捐助金을 區分 징수한다는 것도 不便하니 三位 모두를 全鮮廉氏들이 同一하게 奉守捐助하고 守護하자며 合議決議하고, 또 祭享에 필요한 경비는 全鮮廉氏 宗中에서 每戶마다 2원씩 책정하고 特別찬조를 권하며 每年 음력 2月 15일에 祭享을 奉安할 것과 각墓에 石物을 갖출 것을 合意하고 財務 취급은 永川郡 永川面 金老洞 廉永瑞로 選定하였다.

公은 이외에도 門中族親들과 어울리고 또 各地를 巡迴하며 先祖의 유적들을 답사하여 保全에 힘쓰고 門中諸事를 협의하는 등 당시에 이미 구성된 坡州 廉氏 全鮮大宗會에서의 活動이 빛났다.

또 公은 山水를 사랑하고 풍물에도 關心이 많아 全國 여러 名所와 風景을 돌며 詩

洙妻 朴氏之行門韻

君子家中女土成

自明其德及人明

煥然一閣雙碑屹

烈烈芳名萬古情

(군자집안에서 여인들도 貞節하여 밝은 德行 온 사람에게 그 빛 전해지고 빛나는 전각의 쌈비는 의연하여 貞烈의 그 드높은 이름 만고에 정이로세)

► 改莎慰安于宰相公墓所 有感而賦云

(丙寅 四月 8日)… 1926년

採藥山前廉政洞

拜吾先墓遠來卽

滄葉浩劫無人問

酌酒斜陽淚滿襟

(채약산록에 있는 염정승골

나의 선조묘 성묘차 멀리서

왔소. 창엽 넓은 세간에 묻는

사람없는데 석양에 술 따르니

눈물이 옷섭에 젖는구려)

► 己巳 3月12日(1929) 歷訪

忠南 保寧郡 嵚山下 龍水

里 宗人 東夏家 參祀行 水

絃祠 三先祖位 仍次 原韻

嵐山律律白雲悠

梅菊松風永不休

斥佛除奸忠貫日

遵華同僕義爭秋

遺傳竹帛咸稱美

別界泚山翁自樂

滿堂詩涵客苗連

向上逶迤無限好

春花將發月將圓

(학연히 꾸미지 않고 심산마을에 서서 심학 정중히 닦아만고에 傳하고저 힘써 經書밝히는 이 곳 복지 열리는 곳. 울적한 수심 앞드려 맑은 산이 곳 별천지 늙은이 樂安하노라. 詩情 만당에 잠겨 지나는 손 줄지어 찾고 비트러지려는 마음 바로 할 수 있어 덧없이 좋아 하늘에 달 떠오르는 뜰에 봄 꽃이 피었구나.)

► 次冠雲亭韻

冠嶽雲岑鎮此州

翼然亭子澗之頭

歸臥東岡吟潑畔

依瞻北斗望瓊樓

老石光波危百尺

寒松挺雲關千秋

齋成今日有孫在

不盡芳名永世流

(관악 높은 산 구름은 이 고을을 진정하고 나르는 듯 亭子는 시냇가에 서고 동강에 돌아와 누워 들과 山水를 노래하네. 우러러 北斗를 바라보니 맑은 누각이 보이고 햇

敘에 의하면 栗者는 莊敬의 뜻이며 山者는 靜重의 體이며 樂山樂水의 義趣로 自號하고 安貧樂道의 心境으로 内로는 道를 추구하고 外로는 自省自愛하며 사노라 했다.

비록 은거의 생활은 하면서도 淵齊, 勉庵先生 등께 從遊受學하고 先祖의 유적을 탐사하며 일가 宗族과 交友하며各地를 回遊하였다.

1895년 乙未 겨울에 寶城 清溪影堂에 모셔진 忠敬公 中始祖의 眞影을 模寫해 고향땅

(전면에 이어)
다…… 이하 략함.)

愽齋 成倪의 당시까지만 해도 나라안에서 저명한 文士들의 詩文集을 열거하면서 우리 門中에서 2세 東亭, 清江 두 분에게는 文集 각 한 권이 傳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저 안타까움은 다른 文獻에서 두 분의 詩句가 몇 개 보일 뿐 그 文集이 傳해지지 못하게 안타까울 뿐이다. 다만 그 옛날 두 분의 文集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혹시 지금도 어디에는 그 文集이 숨어있거나 않을까 일가 모두가 염려하기를 기원할 뿐이다.

(宗桓)

山下에宰相公 菊坡, 耕隱公의 墓所가 荒廢해지고 朴海英이란 者가宰相公 묘소 바로 앞에 그의 母 산소를 偷葬한 것을 보고 주변을 재정화하며 투장된 산소를 이장토록 수차 권했으나 불용하므로 1927년에는 全國에 있는 일가에게 대책을 위해 全鮮坡州廉氏大宗會 이름으로 通文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고 慶山의 在敬, 함양서상의 在清, 합천봉산의 在浩, 황해 재영의 昌錫, 永川 대창의 錫辰 등과 함께 連名으로 朴海英을 상대로 訴訟을 제기하여 地方法院과 大邱覆審法院에서 1928년(昭和 3年) 11月 8일에 이장하되 일부 이장비용은 控訴人측에서 부담하라는 判決을 받았으나 해당비용이 마련되지 못해 집행을 못한 채 해방이 되었다.

1927年 5月 25일에 기록한 “大宗會 決議案 輪告文”에 의하면(大宗會 議長 廉錫九) 흥미로운 論題가 있음을 발견한다. 즉 永川에 있는 三位분의 歲一祭의 香火之供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 廉就正은宰相公과 菊坡公은 全鮮廉氏가 同一히 捐助하

文을 남겼고 花, 鳥, 木에 대하여도 감상의 風韻을 남겼다. 公은 四兄弟 中 長男이었는바, 자신과 3男 錫龜는 각 伯父家로 出系하였고 四男錫俊은 中樞院 議官 벼슬을 하였으나 54세로 下世하고 公은 1941년 5월 21일 79세로 他界하며 安義面 鳳山里 배봉下에 葬하였다.

그후 公에 關한 기록들이 發見되지 못했는데 근간 門中에서 景賢堂을 정리하다가 “栗山漫錄”이라 쓰여진 自筆小冊子가 발견되어 公의 行狀과 함께 漫錄의 일부를 적는다.

“栗山漫錄”에서 門中소식 및 宗人們과 서로 나눈 詩文들을 추려 본다.

▶丙申(1896년) 小春에 長湍亢洞에 있는 忠敬公 墓所를 羅州에 있는 進士 在愼과 함께 省撫韻 太平宰相風 復見此山中 泣讀神碑字 千秋讀不窮(나라안을 태평케 한 재상의 風度를 이 산중에서 다시 보는 듯 하다.

신도비문을 눈물겨운 감동으로 읽는바 오래토록 이 감동 잊을 길 없어라.)

▶次寶城 文德面 陽洞里 七

衿式鄉邦孰與儔
多賀肖孫承勿替
芳名馥馥世長流
(帽山 고을 정연히 흰구름 유유히 흐르고 梅軒, 菊坡, 松隱先祖의 風度는 영원하고 요승. 간신히 물리친 忠義는 하늘을 뚫고 빛나는 정성들 서로 義로움 다투었네

선조가 전하는 竹帛之功 함께 칭송하며 경건한 衿式의 行이웃에 전파되고 경하할 후손들 줄지어 끊기지 않아 향기로운 그 빛난 이름 오래 이어지리)

▶月坪永慕齋韻
於戲兄弟二公墓
長在同山歲月移
今日齋成多感慕
奉光明孝永言思
(여기 仁昊, 玉蕃 두 弟兄의 묘 있어 오래토록 같은 산에 모신지 세월이 흐르고 오늘에 야 齋室 이루니 감개 무량하오. 孝誠으로 선조 모셔 오래 토록 이 마음 전하리)

▶次學古齋韻
丁卯 3月(1927년)
確然中立不修邊
心學丁寧萬古傳
力稽明經開福地
滌煩穀鬱俯清泉

빛 비치는 거암은 백천난간에 임하고 한송은 구름을 모아 천추를 있네.

후손에 의해 오늘 재실(정각)이 이루워지니 그 드높고 향기진 이름 영구히 이어지리.)

▶景賢堂原韻

尊堂勤意在寫我慕先賢
盛名垂竹帛 遺像修林泉
孝忠非兼美 文武是兼全
由來清白字 說與後人傳
(선조님 사우를 보전할 뜻으로 잠시 선혈들의 덕행을 연모하네.)

충과 효는 어느 것이 더했다 할 수 없고 문과 무도 함께 갖추었네.

장한 그 이름 죽호에 표상되고 그 유상은 만천하에 빛나며 그 성정은 오직 청백으로 나타났고 후인들이 그 업적 칭송하며 전하네)

- 그밖에 詩文들의 추린
題目들 -

(門中宗人們과 관계된 것)
過統營族進士箕鎮書室
景賢堂 原韻
寶城族 果菴在慎 晚睡宅洙
兩丈南遊 回路 歷訪(長水寺龍瀑)

(다음면에 계속)

月波集(外孫 鄭時林과 宗人們)

鄭時林은 憲宗 5년 己亥(1839년) 12월에 全南 寶城郡 玉巖面 蘆月里(지금의 寶城邑 烽山里)에서 出生하였다. 字는 伯彥이고 月波는 그의 號이다. 本貫은 光山이고 上祖는 鄭臣扈로 고려때에 門下贊成事를 지냈다.

12代祖인 玉川 鄭仁寬이 明宗 4년 己酉에 進士가 되고 壬子에는 文科에 及第하여 直提學이 되어 당시 學者였던 奇大升과 道義로 交友하여 南道 선비들이 많이 따르고 從遊하였다. 그 後로는 뚜렷이 높은 벼슬에 오른 後孫이 없었고 高祖는 潤澤이고 曾祖는 楠이고 祖는 宇喆이며, 考는 漢彬이니 모두가 德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다.

妣 坡州廉氏는 忠敬公 梯臣後 17世孫인 廉聖行의 女로 온화, 유순하고 婦德을 두루 갖추었으며 꿈에 달이 집으로 들어 오는 것을 보고 임신을 해 公을 낳았다고 傳한다.

公이 出生후 얼마 안 있다가 鳳德(지금의 寶城 文德面法化마을)에 있는 고모(廉氏의 妻) 집 이웃으로 이사해 와서 살았다.

公은 天稟이 총명하고 차분하여 일찍부터 글을 알았다고 하며 8세때에는 천연두를 앓아 왼쪽 눈을 失明하였다고 한다. 집이 가난하여 살림이 고모댁에 의존한바 많았으며 이웃마을 內洞에 있는 서당에서 梅菊堂 廉相龍(1794~1850)에게 글을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침착하고 얌전히 면학에 전념하여 일찍부터 뛰어났었다.

모두가 가난하여 책이 없을 때에는 한마을 사람들이 모여 契를 하여 돈이 모아지면 필요한 책을 사서 나누어 돌아가며 보고 經史와 諸子書를 공부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수학에는 발전을 보았으며 公이 22

41세때인 己卯년에는 “法化問答”을 저술하였고 이 해 섯달에 師門(蘆沙)의 상을 당하여 哭하고 加麻했으며 다음 해 2月에 靈光, 凤山에 장사지낼 때 祭文을 지어 올렸다.

癸未년에는 道伯 金聲根이 孝廉으로 선출하여 포상하려 했으나 公이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50세되던 戊子년에는 “禮笏合編”을 지었고 辛卯년에는 師友들과 구례 華嚴寺에서 講을 열었으며 54세때인 壬辰년에는 順天 松廣寺에서 講論을 하였다.

55세때인 癸巳년에는 朱子영정을 모셔 그 앞에서 춘추로 講을 열었으며 63세때인 辛丑년에 圓城의 新安精舍로 찾아가 蘆沙先生의 文集에 대해 강의하였다.

69세 丁未년엔 보성의 彌力面 春亭으로 이사하고 73세때인 庚戌년 10月에 日本에서 여러 번 돈을 주었는데 받지 않고 高興으로 여러 번 피했으며 75세 壬子년 병이 나서 3月 28일에 下世하여



(◆ 2000. 4. 19 전남, 보성, 청계영당 향사)

(거북과 학 같은 千年的壽에 원추와 해오라기 같은 二品의 벼슬이며, 호걸의 기상에 노련한 문장은 타고난 기질로 세간에 드물도다.)

淸溪影堂和 廉敬儒 九曲詩

秀麗峰巒毓地靈

活涵源派瀉溪清

中間五曲書窩在

不絕源派絃誦聲

(수려한 봉우리들 地靈을 모

家道孝慈勤志行
內規扶正見心眞
漆燈誰識千年曉
瑤海仙歸萬星春
堂斧無情三尺土
却埋人世積懷新

(바위, 구름과 물위의 달을 한 평생 벗삼아 화평한 옛기상, 뜻도 심히 순했고 가도는 효와 자 뜻 이루고자 정진했고 내규를 바로 하니 진실의

(전면에 이어)

從俞參判 晚源丈族 遊鳳山郡

白雲庵 吃成一絕

和江原道洪川郡 東面 魯川里

廉東應父 回甲韻

次全南宝城郡 陽洞里 廉東變

東江釣臺韻

梅軒先祖眞影摹奉時實錄

與固城族進士箕鎮

(丙申正月日)

答慶山宗人在敬書

(丙寅正月日)

全鮮大宗會通文

(丁卯二月十五日)

大宗會決議案輪告文

(丁卯四月日)

都事廉公漢默 墓碣銘

答咸南洪原郡州翼面龍川里廉

正鑄

答豐德碑所 廉成鉉

廉島洙犯葬之 時事通文(各道
郡僉宗座下)

答忠南保寧郡 帽山面 龍水里
廉斗燮

答黃海道 延白郡 銀川面 蓮南
里 廉益淳(己巳五月八日)

答宝城郡 文德面 陽洞里 廉在
愼, 宅洙書, 景賢堂 重建實記

景賢堂銘(月城 崔益鉉撰)

景賢堂銘(德殷 宋秉璿撰)

景賢堂 上樑文(知郡驪興閔丙
吉謹撰)

直字說呈 廉斯文 乃範

(嶺南族人 金錄書)

(林內樵夫)

세때인 庚申年에 父親喪을 당
하여 애통함이 간절하고 상
을 치르는 禮가 엄격하여 모
두 찬탄했으며 3년간을 素食
하여 시묘를 마치고도 초하루
보름에는 꼭 省墓하였고 忌日
에는 정성을 다하여 경건히
禮를 다했으며 가난하면서도
뜻이 높아 雄志를 펴서 넓은
천지로 달려나가고 싶었으나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소홀함
이 없고 가정생활과 受學에
一心專念하였다.

공이 27세되던 乙丑년에
羅州 林氏를 맞아 결혼하였는
바 護軍, 啓洙의 딸이다.

30세때에는 蘆沙奇先生에
게 師事하여 勉學의 정성과
태도가 갈수록 엄격하여 朱子
學에 깊이 들어 居敬과 究理
에다 그 實踐을 요체로 삼았
다. 모르면 師門에 묻고 師友
들과 講論하였고 後學들에게
는 정성으로 지도하니 모두에
게 儀表가 되었다. 이즈음
“庸學劄錄” 두 편 “漫錄” 한
편을 지어 학도들에게 보여주
었다.

37세때인 乙亥년에 母親喪
을 당하여도 부친상때와 같이
정성을 다하였으며 39세때는
御史 沈東臣이 글월을 보내며
문안도 와서 궁핍한 생활을
보고 쌀과 고기 등을 보내왔
으나 받지 않았다.

11月 8일에 德津里에 장사지
냈다.

配位 林氏와의 사이에는 一
男一女를 두었다.

一生동안 닦은 性理學에서
주창한 그의 이해와 경계에
대한 것과 理·氣에 대한 견
해, 心·性·情에 대한 설명,
그리고 敬의 수양론 등의 설
명과 소개는 차후의 기회로
하고, 1913년 公이 下世한
다음해 재자인 廉在業(185
7~1918년 18세), 宋棋萬,
金仁圭등의 노력으로 講習齋
에서 간행된 月波集은 原集 5
책, 소집 3책인 바 詩, 書, 雜
著, 序, 記, 跋辭, 上樑文, 墓
表, 行狀, 事實, 傳, 講論편
등 다양한 내용이나 그 中에
서 坡州廉氏 宗人們(公의 外
家)과 나눈 詩文의 대강을 추
려 公의一面을 짐작하고 당
세대 우리 宗人们的 동향을
엿보고자 한다.

次廉悔窩 相烈原韻

誠竝桐岳屹 孝與鳳溪湲
岳色溪聲裏 留傳誠孝心
(誠心은 桐山과 나란히 높고
孝道는 凤溪처럼 깊기만 하네
산 빛과 시내의 물소리 속에
誠孝의 마음 머물러 전해진
다.)

輓廉進士 在高
千年龜鶴壽 二品鷺鶴班
豪傑文章老 肺胎罕世間

두 얻고 살아있는 물줄기는
시내에 맑게 쏟아지네. 중간
에 五曲의 글집이 있어 四時
로 글 읽는 소리 끊어지지 않
는구나.)

廉上舍 右鉉 啓誠韻

鳥頭赤脚罷榮門
趾美承先協衆論
縫亥年籌初度慶
白庚文焰上庠思
三星詩有昌黎咏
五岳遊今尚子存
老杜兩章秋月旬
示余令從酌餘樽

(정여의 은총 받은 영화로운
가문 빛나는 선조의 유업이었
다는 중론이 모여지고 봉읍의
亥年 노인 생신 맞는 경사에
백경의 문장기운 상상의 은혜
입고 삼성의 시는 韓愈가 노래
하듯 신선이 五岳을 노닐 듯,
杜甫의 兩章 추월의 구절을 내
게 보이며 따라 지으라 하며
남은 술을 부어주는구나)

輓廉護軍 宗甲

百壽康濟老 不求被天恩
願使今人學 淳風返一元
(백년의 수를 하고 편히 산
노인, 원하지 안했으나 天恩
마저 입었네. 원컨데 지금 사
람께 배우게 하여 순풍의 上
告에 돌아갔으면)

輓廉參判 仁斌

巖雲水月一生隣
氣古形和意甚醇

마음 옆보이고 칠등이 오래
밝을 수 있음을 누가 알리.
요해의 신선이 돌아가니 천지
가 다 봄이요, 무덤의 三尺
흙은 무정하기만 하고 이 세
상 쌓인 회포를 묻어버리고
가오서)

贈廉敬汝 在愼

收斂猶爲嫌著意
優遊易至不存心
免茲兩病眞詮在
然後方論入道林

(마음을 수렴함에 억지가 병
이 되고, 한가로이 논다면 存
心이 어렵고, 이 두 가지 병
을 면하는 길이 있다면 그런
연후에 바야흐로 道林에 들어
가리)

이 밖에 廉門과 관련된 內
容의 題目은

廉敬儒(在業)에게 答한다.
廉敬甫(洙學)에게 答한다.
廉敬汝(在愼)에게 答한다.
廉敬安(宅洙)에게 答한다.
廉晋叔(永洙)에게 答한다.

이상은 “書”的 형식이고,
林說을 廉相三(台永)에게
주다.(雜著)

廉哲鉉(保卿)의 字辭 뒤에
쓰다(跋)
退隱廉公의 行錄 뒤에 쓰다
(跋)

永思齋의 上樑文(辭)

東右(大宗會 諮問)

손바닥으로 어찌 하늘을 가리는가

進退를 아는 先朝님이 계셨기에 自矜心을 가지며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筆者는 高麗史에 關한 史書를 읽을 때마다 우리 人間들의 善과 惡의 終着驛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自問自答하곤 한다. 미천한 身分으로 사랑과 총애를 입어 한 나라의 중추 人物이 되자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千餘名의 守舊勢力を 강보에 쌓아 어린 영아까지 무참히 학살하고 그도 不足하여 忠誠받쳐 보필하던 임금님을 辛毗의 子息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그것도 惟不足하여 王氏의 全宗族을 바다에 水葬하는 有史以來 前代未聞의 天人共怒할 만행을恣行하여 政權을 築奪하고 正當性을合理화하기 위하여 李氏朝鮮 世祖朝때까지 七十餘年 동안 여러 차례 역사를 歪曲하고當時個人史書와 文集까지도 徹底히 제약을 加했으나 그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보면 불수록 여기 저기에서 악취가 풍기고 있다. 그 엄청

蒙古와 戰爭을 치르면서 江都의 政府에 酷使當하는 二重苦가 어떠했겠는가? 이때의 武人正權의 暴政과 西紀一二四五年에서 西紀一二五四年까지는 崔怡와 沏이 政權을 掌握하고 있던 때로서 高麗領土는 蒙古侵略의 말발굽소리가 끊이지 않던 時期이다. 각處에서는 抗蒙戰爭의 큰 成果도 있었으나 大勢를 역전시킬 形便은 못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戰爭의 主役은 官吏가 아닌 農民 卽一般百姓과 賤民들이었으니 오죽했겠는가? 高宗의 出陸還都之策은 蒙古와의 講和와 撤兵理由로 條件을 내세우면서 江華의 海岸에서 애태우고 있었으나 蒙古兵이 駐屯하고 있던 곳은 모두 焦土化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民亂은 全國各地에서 일어났고 貴重한 文化財의 燃失은勿論이요 罪없는百姓들의 高貴한 生靈은 代價없이虛無하게 사라져갔으며 雪上加霜으로 武人政權下의 不正腐敗는 極에達했으며 特히 崔怡의 아들인 萬宗,

使가 되고 西紀1287年 僉議評理 西紀1293年 忠烈王을 따라 元나라에 다녀온 後洪子藩이 때에 首相이 되고 趙仁規가 亞相이 되고 承益이 다음인데 承益이 兩宮(임금과 왕비)에 총애를 얻어 항상 禁中(궁궐)에 居하는 지라 드물게 都堂(議政府의 別稱)에 이르는데 하루는 子藩이 먼저 나가니 仁規가 承益에게 말하기를 國人이 洪은 眞宰相이라 하고 나를 雖은 譯官(통역관)이라 하고 公은(廉承益) 老呴者(주문이나 외는 雖은이)라 하니 우리들은宰相의 名目에 참여치 못하니 오직 마땅히 아침에 출근하였고 저녁에 宿職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겠다 하니 承益이 그날로 사퇴하고 西紀1302年 僧侶가 되었다고 高麗史에 記述하고 있다. 아첨하는 小人輩라면 그 어찌 그 한 마디를 듣고 그날로 勇退할 수가 있을까? 그뿐인가 謢承益이 지은 大藏寫經所에서는 高麗文化의 產物인 佛經寫本은 거의다 그곳에서 나왔으며 神道碑文에는 一時名公卿이 無敢抗禮者也(그 당시의 재상들이 敢히 동등한

※ 보내준 詩에 急流, 勇退라는 말이 있어

十載華亭空艤舟
豈期黃檗得裴休
若無大手隄防力
爭使曹溪不倒流
(십년동안이나 화정엔 배 대일 곳이 비었는데,
어찌 황벽화상이 재상 배휴를 얻을 줄 알았으리.
만약 제방을 막을 큰 손이 없다면 어찌 조계문이 바로 흐

를 수 있었겠는가.)
※ 白丈 밑에 希運이 득도하고 그 법을 이었는데 당시 재상 배휴(797~870)의 청으로 여러 곳에서 교화했는데 가는 곳마다 처음 출가한 황벽산의 이름이 이어지고 후에 宣宗이 法을 문자 뺨을 세 번 때려 “추행사문”이니 “단제선사”的 별호를 얻다.

敏燮(도유사)

“젊은 그들”을 기다린다

상식의 바탕에서 나날이 지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자면 새것을 익히는 만큼 소중하게 옛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 눈과 귀를 통해 받아들인 옛 것에 대한 범주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야 한다. 그럴만한 안목을 키워내는 것이 글을 읽는 목적이라고 옛 사람들은 가르쳤다. 앞의 깊이와 너비가 어느 정도 커지면 거기서 무엇을 버리거나 잊어도 괜찮고, 무엇은 취해야 할 것인지 알

지 않고 오류와 편견의 색깔을 더 진하게 칠해 놓을 뿐이다.

고종황제는 暗君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만큼 독사(讀史)의 경험을 갖고 있다. 학습을 받았거나 책에서 읽어낸 역사의 깊이와 넓이는 제각기 다르고 역사에 대한 상식과 지식의 테두리도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다.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로 접어든 길목을 지킨 고종황제는 암군(暗君) 혹은

난 피의代價는 바로 李氏朝鮮五百年的骨肉相殘 바로 그것이었다. 今日은 이만言及을 避하니 餘他是 昭見國乘과 野史 및 當時文集하라. 그러면 잠시 謱廉承益 先祖에 對하여 高麗史에 記述된 내용을 읊기고자 한다.

廉承益의 처음 이름은 惟直이요 政堂文學 信苦의 後孫이다. 일찍 惡疾을 얻어 浮屠(절의탑)와 神祝을 얻어 誦讀하고 손바닥을 뚫어 줄에 꿰어 精勤하여 病이 나으매 드디어 사람의 질병을 빌어 고치기를 일삼으니 李之氏의 薦한바되어 忠烈王의 총애를 얻었으며 그의 사람五十人을 시켜 큰邸宅을 짓고 그 집을 大藏寫經所로 삼아 아첨과 貪慾한 璧臣(폐신)으로 蔽倒하여 記述하고 있다. 그러면 謱承益의 生長過程인 幼年期와 青年期는 如何한 時期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이 當時는 東亞細亞는 그야 말로 歷史上 未曾有의 蒙古帝國의 征服戰爭으로 因하여 戰禍의 涼中에 휩쓸려 精神이 없을 때였다. 高宗 一九年 檀紀 三五六五年 西紀一二三二年 高麗의 首都가 江華로 옮겨갔고 육지에 남은百姓들은

萬全은 僧侶로서 그의 門徒들이百姓의 財產을 掠奪하는 일이 일어나자 民心은 極度로動搖할 뿐만 아니라 萬全이란者는 還俗하여 沐이라 改名하고 實權을 掌握했던 者로서 그 時代的狀況의 一例에 不過하다 하겠다.

이때의 佛教는 蒙古의 集中的 攻擊으로 戰爭에 지친百姓들에겐 精神的支柱였을 것이다. 十餘年間의 年代記는 戰爭과 民亂 疾病과 飢餓等으로 點綴되던 時期이다. 이런 狀況이 謍承益으로 하여금 本人도 惡疾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서 精進九死一生으로回生한 再生之人으로서 飢餓와 疾病에 呻吟하는 民衆들의 苦痛을 外面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疾病으로 呻吟하고 苦痛받는 民衆 가운데 직접 뛰어들어 苦痛을

같이 나누며 疾病退治에 獻身했던 것으로 料된다. 그런 故로 그 所聞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朝野에 퍼져나가 及其也 李之氏의 薦擧로 入仕하게 된 動機가 아닐까 생각된다. 入仕後 西紀 1278年 必聞赤(필도치)가 되고 員外郎西紀 1284年 副知密直司事로 慶尙, 全羅, 忠淸道의 都巡問

교제나 대등한 예로서 대하는 자가 없다하였으니)라 하였으니 그 高潔하신 人品은 可知라 하겠다. 高麗圓鑑國師集에 謍承益先祖께서 勇退할 當時 謍承益先祖의 詩를 받아 보고 圓鑑國師가 次韻한 詩가 있어 先祖님의 高邁하신 風貌를 뵙는 것 같아 自矜心을 가지며 기쁜 마음으로 아래에 밝히고자 한다.

次韻奉答 廉相國 承益 二首
(謡承益은 謱悌臣의 祖父임)

君王倚作濟川舟

獻替何曾得暫休

莫爲一身思獨善

魚龍方喜泳洪流

(군왕에게 내를 건내는 배가 되어 보필하기에 여념이 없어 잠시인들 어찌 쉬었으랴. 한 몸 위해 독선을 생각 말라. 어룡은 큰물에 놀기를 좋아하나니)

의 속내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 그 다음의 일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사람의 겸증을 거치고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의 가슴속에 두꺼운 켜를 이루며 가라앉는다. 그걸 일러 상식이라 한다. 모든 지식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상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난삽하고 궁벽한 지식이라고 해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루의 세 끼만큼 소중한 '상식'으로 자리잡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잘못 배우거나 잘못 안 지식이 몸 속에 상식으로 가라앉아 있어도 그 오류나 편견을 벗겨낼 힘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어제 그 자리에서 맴도는 시간일 뿐이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미 들어찬 잘못된 상식은 지워지

흔군(昏君)이라고 배웠다. 그렇게 쓰여진 책으로 배웠으니 우리는 달리 역사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지도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여 상식으로 저장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3년 전에 그렇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한 학설을 내놓고 이를 책(<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년)으로 펴낸 사학자 이태진(李泰鎮, 서울대 교수)의 주장은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비롯한 조선역사 깎아내리기와 일본이 조선병탄의 합리화를 위한 조선 근대사의 왜곡이란 점을 밝혀내고, 선교사를 앞세우고 개화를 강요했던 서양인들 간의 엇갈린 평가자료에서 도출된 고종황제의 암약설(暗弱說)을 비판하고 이를 부정했

(다음면에 계속)

法務士 廉 東 署

光州地方法務士會長
大韓法務士協會 副協會長
大宗會 顧問

광주시 동구 궁동 35-5
전화 062-227-3177, 7800
자택 062-267-7707

現代海上火災保險

(亞洲代理店)

代表 廉鍾洙

坡州廉氏釜山宗親會長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3-5
051-960-1862 직통

菽栗之文

“콩이나 조와 같은 곡식처럼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세상에 널리 통하는 아주 쉬운 글” 이란 뜻이다.

아무리 뜻이 좋고 美文이라도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거나 읽혀져도 내용이肯定하고 호응되는 바가 없다면 쓸모없는 글이나 죽은 글이라 할 것이다.

벌써 여러 해 우리 門中の 宗報를 편집하고 있는 입장에서 깊이 새기고 유념하는 銘이다. 함에도 宗報를 접해 본 일가분들 중에는 왜 宗報內容에 어려운 漢字를 많이 쓰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글만 쓰는가 하며 反論한다. 우리 일가분들에게 두루 읽게 하고 敦導하려면 高等學校 學生들도 읽고 이해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力說하는 분도

계신다. 이럴 때마다 筆者는 속으로 辨明하는 고집이 있다. 卽 일가분들 특히 중고등 학교 학생에게도 재미있게 읽게 하려면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 또 나이가 지긋한 일가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꼭 읽을 내용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했을 때 필자는 결음이 멈추어진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先進國 사람들에 比해 讀書하는 양이 너무 적고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편하게만 살려하고 또 자신의 체질과 취향에 맞는 일에만 열중하며 남을 위하기보다는 심지어 가족들 間에서 조차 자신만을 위하는 利己心만 生活철학으로 信奉하는 풍조가 팽배하는 현실에서 한 家門의 신문으로서 어떠한 과제를 어떻게 表現할까를 생각하면 더욱 봇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더더욱 識見이 짧고 거기다 表現力이

不足한 鈍才로선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하기에 나름대로의 地平을 設定하고 配慮의 기준을 限定시켰다. 우선 주어진 與件을 생각할 때 財政상태가 열악한 門中 예산이 宗報간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發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發行企劃을 해야 되고 그 액수의 태반도 會長님의 배려로 충당하는 사정으로 1년에 겨우 한 번 發行하는게 고작이다. 얼마치의 여유도 가져보려고 廣告청탁을 해 보았지만 호응하는 일가가 不足하여 한 때는 일체 廣告가 없는 宗報도 發刊하였다. 거기다 많은 일가분들이 읽어 줄 수 있는 내용의記事도 모여지지 않는다. 原稿료는 물론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도 아니니 投稿가 적다고만 할 수도 없다.

어느 門中의 신문마냥 누구가

回甲을 맞이했고 자녀분이 결혼했다 등 극히 日常의 기사만을 소재로 한다며 1년에 한 번 나오는 아까운? 宗報가 눈으로 훑어보고 휴지로 버려 진다면 나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때문에 우리 宗報는 항간의 혼한 日常의 소문이나 심지어 族譜에 기재된 내용을 반복하는 것도 피해서 일가분들에게 조금은 어렵더라도 우리 門中에 關한 새로운 역사를 발굴하고 어려운 世波를 조금은 슬기롭게 克服할 수 있는 지혜를 심어주자 라는 命題를

새웠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 宗報를 모아두면 우리 門中的 훌륭한 文獻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意慾이다.

벌써 13번째가 發行되는데 일가분들 중 어느 분이 처음 號부터 모아두셨을까 하며 푸념을 담아본다.

宗報도 탄생된 이상 生命이 있다. 영양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가꾸어서 우리 일가분들의 스승이 되어 가르침을 받고 친구가 되어 다정히 서로 격려하며 담소하며 씩씩한 자손으로 키워 자랑하고 보람되게 하자.

(碧江)



(전면에 이어)

다. 물론 이 주장도 충분히 검증을 거친 공리(公理)나 지식으로 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제기한 이 문제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공하여 역사의 편견과 오류를 수정하는 큰길에 올라서게 되는 시초(始初)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기에 전제군주로서의 고종황제의 위상이나 개인의 품성과 통치능력, 또는 당시의 국내외의 입지 등에 관해 지금껏 쓰여진 역사의 기록을 새로운 인식으로 되짚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소이(所以)를 내놓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할 이유만큼이나 중요하고, 사람이 왜 사느냐는 물음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를 다시 읽어야 한다. 역사의 편견이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곧바로 상식의 반란이나 지식의 혁명으로 이어진다. 이를 단순히 기발하거나 엽기적인 가정(假定)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을 참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바로 독사(讀史)의 이유가 되고 오늘을 참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대목이다.

사회현역중심의 운명을
화수회, 종친회, 대종회의
존재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

이 10여 년 전의 일이다. 한 성바지를 지난 사람들은 모두 가 일가(一家), 일족(一族)이라는 테두리에 엮어 혈연의 기치아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맞대면서 친하게 지낼 이유를 공유해보자는 결사(結社)임을 인식하고 성의껏 참여해야 한다는 자각을 갖게 되기까지는 그때부터 꽤나 오랜 시일이 지나야 했다. 종친회나 대종회의 간판을 보거나 소집통문을 펼쳐보면 우리 사회의 주된 활동권에서 물러난 노령의 일가들만 자리를 함께 하여 종친회의 모든 의사 발의와 결정, 재정 운영 등이 최고령의 종친이 운영했다.

칠순에 이르지 못한 종친은 그 근처에 얼씬거려서는 안되는 성역(聖域) 쪽으로 알고 있었다. “어른들 모이는 자리에 어디 함부로…” 부조(父祖)의 연치에 이르지 못한 종친은 어느 누구도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원로원이요, 그저 거기 모이신 어른들이 정해서 시키는 일에만 복종하고 경비의 일부라도 성심껏 내놓는 것이 참여요, 임무로 여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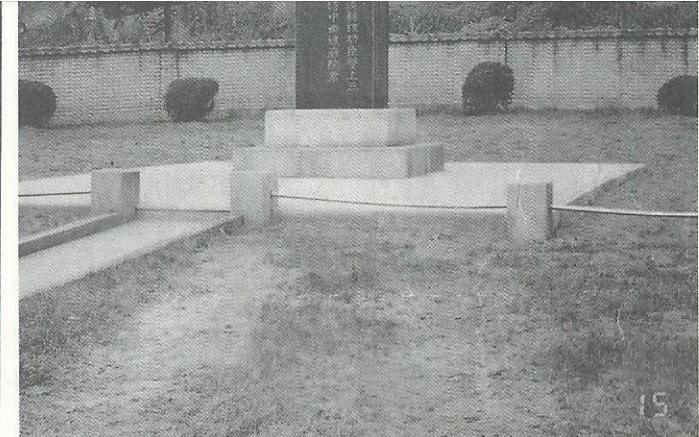
서울종친회의 모임에 처음 나갔던 날 받은 인상도 이런 범위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역시 자리를 같이한 종친들은 칠순에서 미수(米壽)에 가까운 장로들이었다. 직장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 참예한 종친회의 어떤 모임 자리든 나는 말석에서 애송이가

되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봐도 나보다 젊은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는 것이 옳았던 게 아닌가 싶었다.

종친회서 논의되는 주요사업은 웃대조(中始祖) 할아버지의 숭모사업(묘역관리와 제사절차)에 관한 재정과 집행에 관한 것이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일가들에 관한 일들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나 미래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대종회의 불문율이거나 한 것처럼 과거지향에만 치우치는 사업이었다. 회의내용이나 주고받는 담소의 화제에 귀를 기울여봐도 조선추모를 제외하면 대종회의 존재의미는 없는 듯했다. 성급한 단정을 짓기 쉬웠다. 일년에 한 번 나오는 종보(宗報)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종친회 역원(役員)의 고령화는 일가의 든든하고 존엄스런 뿌리처럼 원숙·권위의 표징이 되기에는 충분해도 사회의 중추요 추진력이 막강한 40대 전후의 현역(現役)을 핵심세력으로 배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다. 연부 역강한 장년의 추진력이 대종회의 일선에 나서거나 종친회의 제2역군의 침을 둘러매는 날에는 현재진행이나 미래지향적인 종회 사업이 추진되리라는 것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문호를 활짝 열고



(◆ 강화사단 진도비 부근 보수공사 후)

生活의 禪

2000년

—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사랑”的 이름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고 소유하지도 않으며 도와주고 내가 희생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며 오직 그것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다.

사랑의 상대는 우리 마을일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일 수도, 온 인류일 수도 있다. 또 그 상대는 이성일 수도, 동성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다. 아니 한 곡의 음악일 수도 한 폭의 그림일 수도, 한 구절의 시구, 하늘의 저 달일 수도 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젊은 일가들을 종친회의 추진 세력이 되게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내년의 핵심사업으로 삼아 종친회의 원로들은 ‘젊은그들’이 일을 할 마당을 펼쳐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탄탄한 근육과 그들의 명석하고 재바른 두뇌가 종친회를 이끌어나갈 날을 얼른 보고싶다.

基璿

(단국대 강사, 신문방송 전공)

(母影居士)

(8) 2000年 11月 1日(庚辰 陰 10月 初 6日)

蘆月軒遺稿 (廉在業)

蘆月 廉在業은 哲宗8年 (1857년) 丁巳 閏 5月 11일에 全南 宝城郡 文德面 内同里에서 忠敬公 17世孫인 謙學齋 昌煥과 錦城 李氏 사이의 3男中 次男으로 出生하였다. 祖는 梅菊堂 相龍이다.

어릴때부터 姿稟이 端雅하고 言動이 非凡하였다. 公의 3從弟되는 果菴 在愼이 쓴 公의 行狀錄에 기록되어 있다.

7세때에 叔父되시는 晚溪公. 鍾煥께 受學하였던바 매우 영특하여 叔父는 우리 집에 文名을 傳할 자는 반드시 이 아이다라고 늘 말하였다 한다.

자라면서 父母에 孝誠을 다하고 兄弟間에 友愛가 깊고 친척간에 花목을 다하였다. 公은 가문을 일으킬 마음으로 科舉공부를 하여 菲법이 속달되고 문예가 급진하였으나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天文, 地理의 글도 박람하였으나 存養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壬子, 癸丑年까지 참예하였다. 淵齋, 勉菴, 心石齋 세 先生의 道德, 節義와 學問을 景慕하여 고향의 淨潔한 한 구역을 清溪書堂의 동편에 선정하여 壇을 쌓아 祝文을 짓고 壇享을 모셨으니 公의 스승을 존경하는 정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公은 평소 山水를 좋아하여 凤陽山 밑 清溪의 지역은 公이 平日에도 遊息하던 곳인바 곳곳에 九曲이라 標號하여 돌에 새기고 武夷九曲의 韻을 써서 禮川 위에서 詩를 짓고 族孫 永洙, 宅洙와 더불어 亭子를 세우고 心石齋 先生이 손수 “禮川亭”이라 써 준 편액을 현찬하였고 또 써준 柱聯을 전각하여 달았다.

이때의 心境을 다음의 詩를 지었는바

程子江東別有天
禮巖如拱白雲邊

公이 생전까지 우리 門中을 대상으로 한 詩句中에서 추려 서투른 해석을 하며 公의 유지를 짐작코자 했으며 또 詩, 書, 文, 上樑文, 祭文中에서 도 역시 우리 門中 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것만 추려 그 제목만 소개하여 관계된 후손에게나 일가분들께 참고케 하여 보다 깊은 先生의 뜻과 글의 계손된 연구를 기대해 본다.

(詩)

清溪堂與諸生言志

買得一名山 從遊師友間

時清携手起 世濁奉身還

(清溪九曲 幷小序)

鳳陽山上有神靈

其下寒流曲曲清

此地欽尋遊息處

許君間聽我歌聲

全南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清溪의 경치는 凤陽山 및 서쪽으로 흐르는 程子江 동녘편



(◆ 전남, 나주 삼영동 충경서원 묘정비 제막)

- 題目 -

線山省先祖副正公 墳瑩

(文)

進士族兄池堂公(在高)輓(서)

永思齋 上樑文

講習齋謹次 月波鄭丈(時林)韻

清溪書堂 重修告田文(祝文)

祭再從叔 隱窩公(極煥) 祭文

祭再從叔 護軍公(吉煥) 祭文

哭 從弟 在輔文
哭 族孫 永洙文

贈一峯 族姪 進士(右鉉)

11代祖副正府君 墓表(慎孫)

與族孫 汝彦(東炫) 其哈

從先祖佐郎公墓表 陰記(振名)

贈三從弟 敬汝(在愼)

族兄 贈參判公(在餐)

過金川訪宗人 順卿

崇義殿(경기, 麻田, 峨渭江上)

에 해롭다 하여 뜻을 깊이 두지 않고 우리 나라의 先生인 靜菴, 退溪, 栗谷 등 학자의 朱子學에서의 理氣의 說을 참심 연구하였다.

公이 20세인丙子년(1876)에는 母親喪을 또 1880년인庚辰에는 父親喪을 당하여 哀毀하기를 오히려 法度에 지나치게 하고 朔望으로 墓에 哭하여 風雨에도 빠지지 않았으며 喪事を 치르고도 반드시 齋戒하고 계신 것 같은 정성을 다하였다.

당시 여러 穎學을 고루 찾아 가르침을 청하여 배움을 얻고 여러 著名한 人士들과 從遊하여 배운 學問을 講論하고 또 소요하였다.

金重菴의 高風을 景仰하였던 바 配所에서 고통 끝에 卒하심에 만장을 지어弔禮하였는바 1905년己巳에는 先師의 遺集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와 玉女峰 남쪽에 집을 짓고 “玉南書屋”이라 하고 後學을 教導하였다.

華陽洞에 있는 萬東廟의 享祀를 나라에서 앞으로는 士林에서 주관하라는 방침이 내리자 公은 宝城고을의 尊華契를 창립하여 1911년 辛亥에는 원로까지 萬東廟에 가서 春享祀에 참예하였고 그 곳 風泉齋에서 公에게 士林에서 掌議의 책임을 맡기자 수차 사양

客來欲識斯亭樂
十里蘆汀繁釣船
(정자강 동편에 別天地 있어
예암은 백운변에서 음하듯 하니 손이여 와서 이 정자의 즐거움 알려거든十里노정에 낚시배를 매어 보게나) 또 國內 명승지를 자주 역탐하였는데 스승 心石齋는 늘 公의 浩然之氣를 가상하고 그의 文章을 司馬遷에게 비교하여 칭찬했다.

1910년 甲寅에는 經書를 안고 龜山 山中에 들어가 떠집을 짓고 은거하려 하였으나 어찌알고 원근의 학자들이 찾아와서 禮說을 강구하여 經義를 토론하여 쉴 수 있는 날이 없었다.

1910년 庚戌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신음중에 있기 8년여 1918년에는 병세가 위급하자 在慎, 宅洙와 問生을 불러놓고 문서의 정리와 後學들의 교도 등을 자세히 분부하고 이달 15일에는 長子 哲鉉을 불러 여러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조용히 62세의 생애를 접었다.

配位는 昌寧曹氏로 婦德을 두루 갖추었으며 슬하에 長男 哲鉉과 伯父에게 出系한 旭鉉, 李父에게 出系한 佶鉉과 출가한 두 딸이 있다.
(三從弟 在慎의 行狀에 의함)

청계근방의 정경에서 九曲을 설정하여 그 절경과心思 등을 노래하며 그 序詩에 (한명산을 얻어 師友간 서로 어울려 노니나니 어지러운 세상 벗어나 맑은 풍토 잡고 이 루었네) 하며 原韻하여 “鳳陽山 위에 신령이 살아 산 밑 흐르는 차거운 물 구비마다 맑고 이 곳 경건히 찾아와 쉬는 곳. 그대여 가끔은 들어 보라 나의 노래를”

別有地의 수려한 유곡을 자랑하며 노래했다.

清溪影堂瞻拜 先祖 梅軒先生 遺像

金碧斜陽照水明
八門自有肅然情
當年鶴髮侍中老
瀟灑清風百世生
(저녁지는 햇빛 금빛으로 물 위에 비치고 영당의 문들을 보니 숙연한 정감이 이네. 우리 선조님 충경공 시중님 학의 깃들 같은 기풍. 맑고 깊은 당년의 위품 百世토록 영원히 살아 숨 쉬라.)

永思齋韻
先祖菟裘地 大齋今幸成
春秋霜露感 百世永言情
(선조님들 줄 잊고 영화로히 사시던 곳에 오늘에야 다행히 재실 세웠으니 봄, 가을 세월 따라 깊은 유지 돌이키고 오래토록 이은 정념 영원토록 빛나리)

麗太祖 位碑浮于 (行狀)
一峯族姪 進士 輓(시)
送族孫 正叔(建洙) 一行 三山
因簡奇松沙
清溪書堂行鄉飲禮韻
寄族孫贊叔(翊洙)
示族孫晋叔(永洙) 敬安(宅洙)
乙卯除夕與族姪洋錫 族孫敬安
共吟 族孫 七洙 案上海梅
族孫 鍾烈 與一行 智異山歷
見龍齋與族姪 友鉉, 喆鉉 等
寄族孫 禮叔(東錫)

蘆月軒遺稿 원본은 10권 4冊으로 되어 있고 序文은 德殷 宋曾憲이 쓰고跋文은 族孫 宅洙가 썼으며 보관은 孫子인 芝洙氏가 하고 있다.

喆浩(大宗會 理事)

편집후기

妻의 오랜 병환의 막바지에서 여름은 더워할 틈도 없었다. 가을이 되어 50년을 함께 한 처를 보내고 나니 약해진 여원 마음을 가누지 못하던 차 문득 생각하나 宗報 발행 예정 일이 임박해 사명감으로 밤을 새웠다.

원고주신 敏燮, 基瑢님 너무 고맙고 先祖분 遺稿 찾아보내주신 東玉, 東右, 喆浩님 격려해주신 相顯, 秀東님 그 고마움 어이 답할꼬.

말씀없이 發行하는데 쓰라며 선뜻 100만원을 주신 會長珪澤님, 이번 13號는 이 분들께 드리는 저의 마음이다.

(碧江)